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의 비판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혜윤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

A Study on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in the Elderly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Hye-Yoon J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ublic Service, Mokwon University

요약 정보격차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은 정보소외계층으로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획득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미디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운영적 역량과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은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욕구는 운영역량이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이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접근성 강화에서 정보에 대한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의 비판적 수용, 인지욕구, 조절효과, 정보격차

Abstract As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e digital divide are increasing, the elderly are facing various problems as an information alienated group.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critically understand and accept information.. In this study, using the 2020 media panel survey,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in the elderly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information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cognition.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al and the information skil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information.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NFC(Need for Cognition), it was found that NFC strengthens the influence of operational skill and reduces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skill. This suggests that the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the elderly needs to change from strengthening accessibility to improving information judgment.

Key Words : Digital Liter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eed for Cognition, Moderating Effect, Information Alienated Group

*Corresponding Author : Hye-Yoon Jang(hyj0228@mokwon.ac.kr)

Received April 11, 2022

Revised May 12, 2022

Accepted June 20, 2022

Published June 28, 2022

1. 서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 정보검색, 키오스크 등 생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보의 획득과 활용 역량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1].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의 낮은 활용능력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를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노인의 생활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능력이라는 개념부터 협의의 정의부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점차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무분별한 정보 수용, 즉 허위 정보에 대한 판별 여부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의 비판적인 이해 능력은 디지털 기기의 활용 역량과 무관하지 않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활용능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의 필수적인 시민 소양으로 기능하는 추세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등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1-3]. 간헐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개인정보 위험과 관련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4], 정치 효능감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5] 등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주로 초기에는 삶의 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의 사회활동과의 관계[5,6]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초기에는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을 선형관계로 분석하였다면, 최근에는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7,8].

다만,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검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 획득의 격차나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은 정보의 판단 능력이라는 점은 다소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진위성을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이해 능력 간의 관계를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리터러시

리터러시의 사전적인 정의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문해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역량[3]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스마트 기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인터넷에 국한되어 있던 개념은 보다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핵심 구성요소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Larsson(2000)은 정보를 발견 및 수집하고, 이해하며 이를 재구성하는 등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9], Eshet(2002)는 지식정보사회 하에서의 생존기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사고방식, 인식 등으로 인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10].

한편, 김시정·최상옥(2019)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디지털 기술의 이용 역량(skill)과 활용(use)으로 구분하였다[4]. 디지털 이용 역량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기술적 측면의 도구적 역량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내용적 역량으로 구분한다. 또한, 활용은 정보의 생산과 참여 등의 생산적 활용과 사회적 소통 및 공유활동인 사회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변성을 갖고 있으며, 학자마다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상이하게 개념 정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은 다양한 하위 개념을 만들면서 정보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관련 리터러시 개념과 디지털 리터러시 간 명확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른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대표적 연구로서 Bawden(2001)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타 유형의 리터러시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의 기술적 활용 능력, 정보에 대한 지식, 정보의 평가, 활용, 수용능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네트워크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하이퍼리터러시, 멀티미디어리터러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11].

유사한 측면에서 Ala-Mutka(2011)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른 리터러시와는 다른 새로운 리터러시로 정의하였으며, 정보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및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2].

종합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식정보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술로 간주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의 리터러시 개념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차원의 리터러시 개념을 포함하거나 중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리터러시 개념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추가되는 양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리터러시 개념은 연속성의 성격을 갖는다[13]. 다만,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이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보는 협의적 관점을 통해 타 유형의 리터러시 개념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2.2 정보의 비판적 수용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접근과 기본능력에 따라 나타났던 정보격차 문제는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정보격차 외의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활용은 사람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정보획득을 하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미디어정보의 이해능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신뢰성을 판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대량의 정보 속에서 미디어 정보가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으며,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만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사회,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4].

정보의 비판적 이해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과 관련하여 영국 오프콤(Ofcom)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로서 참여, 정보의 선택, 회복(정보판별)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15],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미디어 접근, 메시지 평가 및 창출, 소통 능력 등으로 정의한다[16]. EAVI(2011)는 미디어리터러시를 접근성 및 활용, 비판적 이해 등의 개인적 구성요소와 참여, 소통 등의 사회적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의 비판적인 이해 역량이 최근 재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미디어 기술 발달로 인한 가짜뉴스(fake news)가 확산되면서라고 볼 수 있다. 노들·옥현진(2020)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2000년대 초반 확산된 이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역 U자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정보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3]. 김경희 외(2019)는 모바일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중 '비판적 이해'를 가장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17].

이처럼 정보의 비판적인 이해 능력에 대한 개념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개념으로서 주로 제시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그 개념이 다양한 리터러시와 중첩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념상 정의를 따를 때 디지털 리터러시의 포괄성, 추상성으로 인해 개념상의 혼동이 나타나게 되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개념간의 상이성, 관계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2.3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의 비판적 수용의 관계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들은 초기에

정보격차의 문제를 증점적으로 다루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활동, 삶의 질과의 관계[1-3]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정보 보호 인식, 정치 효능감 등[4,5]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양한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들의 삶의 변화 간 관계를 검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주로 정보를 획득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노인의 정보 획득과 활용 역량이 노인들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역량, 행태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 경험과 정보의 비판적인 수용 간의 관계를 검증하거나[14] 집단 간 역량 차이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18,19] 이루어진 바 있다. 노인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연구들은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자녀 동거 여부 등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20,21]. 이처럼 다양한 정보의 원천 속에서 정보를 판별하는 비판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디지털 기기를 주된 도구로 활용하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의 획득과 활용에 대한 역량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 때 정보의 출처와 가공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보의 신뢰성을 판별하려는 행위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기기를 작동하는 역량과 기기를 통한 정보 획득 역량은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토대로서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은 경우 기기를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19].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경우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정보의 비판적인 수용은 인지적 노력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즐기는 경향성을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 NFC)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기며,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판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지욕구는 정보를 처리하고자 방식의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기초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을 조절하게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주형·김기연(2021)은 교육수

준이 정보의 비판적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지욕구의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0].

3. 연구 설계

3.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의 비판적 수용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0년 한국미디어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가구의 행태의 변화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과 이용 행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이용 현황, 인지욕구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의 대상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2,062명을 대상으로 삼는다.¹⁾

한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해 평균중심화 처리를 한 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VIF값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변수 측정

3.2.1 종속변수: 정보의 비판적 수용

노인의 정보의 비판적 수용은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획득한 정보의 사실성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6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정보의 사실 여부, 출처 및 출처의 신뢰성 확인, 정보의 근거, 상업적·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의 1점과 '항상 그렇게 한다'의 5점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값은 0.957로 나타났다.

3.2.2 독립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본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협의의 관점에서 디

1) 매년 설문 문항이 변경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인지욕구가 조사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한다.

지털 기술의 사용 능력과,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적 관점에서 운영능력과 정보수집능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측정한다. 운영능력은 기본적인 기기의 조작능력으로서 메시지 발송 및 열람, 기본적인 환경설정 역량 등의 총 3개 문항을 활용한다. 각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값은 0.808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은 포털 및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검색 및 고급검색 역량,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된 총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값은 0.896로 나타났다.

3.2.3 조절변수: 인지욕구

인지욕구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으로서 복잡한 문제의 해결정도,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 학습의 즐거움, 어려운 문제해결시 즐거움 및 노력 수준,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일에 대한 적극성, 단순한 문제에 비해 복잡한 문제를 좋아하는 정도 등을 측정한다. 6가지 문항을 활용한다. 각 문항은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4점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값은 0.858로 나타났다.

3.2.4 통제변수

본 연구는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지역, 디지털 조력자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되었으며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4', '대학원 이상=5'로 측정하였다. 소득의 경우 '소득 없음=1', '50만 원 미만=2', '50-100만 원 미만=3', '100-200만 원 미만=4', '200-300만 원 미만=5', '300-400만 원 미만=6', '400-500만 원 미만=7', '500-600만 원 미만=8' 등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디지털 조력자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로 측정하였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의 비판적인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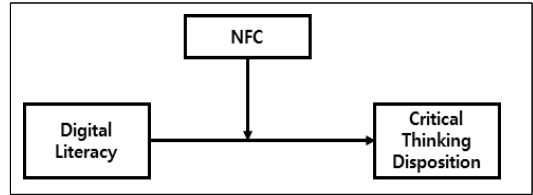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정보의 비판적인 수용 태도는 평균 2.18(sd=0.96)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운영적 역량이 평균 2.24(sd=0.95),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이 평균 1.63(sd=0.92)로 운영적 역량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절변수인 인지욕구는 평균 1.96(0.61)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통제변수로 설정된 디지털 조력자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전체 연구대상의 27%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이 42%, 시 지역 거주자가 83%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연령은 약 74세이며 소득 평균은 2.7(sd=1.43)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ean	S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18	0.96	
Region	0.83	0.38	
Digital Supporter	0.27	0.44	
Education	1.86	0.93	
Gender	0.42	0.49	
Age	74.25	6.62	
Income	2.70	1.43	
Digital Literacy	Operation skill(DL1)	2.24	0.95
	Information skill(DL2)	1.63	0.92
NFC	1.96	0.61	

4.2 분석결과

4.2.1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Region	DS	Edu	Gender	Age	Income	DL1	DL2	NFC
Region	1								
DS	0.135***	1							
Edu	0.231***	0.204***	1						
Gender	-0.007	0.026	0.313***	1					
Age	-0.046**	-0.162***	-0.390***	-0.049**	1				
Income	-0.004	-0.005	0.315***	0.472***	-0.246***	1			
DL1	0.133***	0.156***	0.476***	0.220***	-0.554***	0.344***	1		
DL2	0.125***	0.205***	0.487***	0.203***	-0.431***	0.371***	0.608***	1	
NFC	-0.025	0.021	0.205***	0.143***	-0.201***	0.174***	0.339***	0.287***	1

*p<0.05** p<0.01, *** p<0.001

4.2.2 조절효과 검증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보의 비판적 수용 행태에 인지욕구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R²값의 경우 분석 단계별 설명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odel 1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비판적 정보 수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서 학력, 기기 운영 역량,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환경에서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자 하는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기를 조작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정보검색 및 활용수준이 높은 경우 정보의 생산과정과 정보가 갖는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였기 때문에[20]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odel 2에서는 학력, 기기 운영역량,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 외에도 인지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욕구는 복합적 사고를 하려는 심리적 동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단순히 전달된 정보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21].

Model 3은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욕구의 수준이 높을수록 운

영적 역량이 정보의 비판적인 수용행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의 활용검색 역량은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조작, 운영이 높다는 것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인지욕구가 높다는 것은 미디어 정보와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 태도를 갖고 정교한 정보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20]. 따라서, 획득된 정보의 출처의 신뢰도, 미디어 정보의 부작용 및 폐해 등에 대한 사전 지식에 따라 정보 처리 태도가 신중해질 때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행태를 이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지욕구의 조절효과가 운영적 역량과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검색과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검색 기술로서 디지털 기기에 조작적 역량과 지식을 측정한 운영적 역량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분석결과, 정보의 검색과 활용 역량과 인지욕구가 높은 노인들은 정보의 비판적인 수용행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사고 과정을 즐기는 편이고, 인지욕구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동기 부여가 높은 편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정보검색과 공유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2,23]. 즉,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이 높은 노인들의 경우 정보의 검색과 공유의 양이 높아지나 정보의 질을 판단하는 역량은 인지욕구에 따라 강화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정보의 노출이 많을수록 인지복합성이 저해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정보검색 역량과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미디어를 통한 정보검색의 양이 많아지고,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정보를 다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지복합성이 낮아져 정보의 비판적 수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3]. 이는 추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이해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단순히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향보다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Moderated Effects: Model 1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Beta	Beta
Region	-0.058	0.003	0.000
DS	0.002	0.030	0.033
Gender	0.075	0.044	0.036
Age	0.002	0.002	0.001
Edu	0.089***	0.079***	0.078***
Income	0.025	0.024	0.025
DL1	0.244***	0.179***	0.171***
DL2	0.185***	0.142***	0.185***
NFC		0.499***	0.469***
DL1*NFC			0.142***
DL2*NFC			-0.191***
F	82.632***	111.984***	95.233***
R ²	0.244	0.329	0.338
Adjust R ²	0.241	0.326	0.335
△R ²	0.244	0.086	0.009
△F	82.632	262.578	13.643

*p(0.05** p(0.01, *** p(0.001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의 비판적인 수용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욕구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운영적 역량,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 인지욕구가 모든 모형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는 운영적 역량의 영향을 강화시키나,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를 조작화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적 역량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노인들이 많고, 미디어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판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의 경우 미디어 정보의 검색량이 많아 오히려 정보를 다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인지복합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 결과 정보의 비판적 수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행태를 이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시 정보의 검색 및 활용 역량과 인지욕구의 조절효과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획득하고자 하는 검색 양의 증가는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행태까지는 이끌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이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학술적 관심은 주로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 정책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디지털 격차의 완화, 접근성 강화는 도모하였으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격차는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5]. 즉, 정보의 획득과 이를 평가, 판단하는 역량에 미치는 요인에는 다소 관심이 저조하였던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인지욕구가 운영적 역량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볼 때에는 노인들의 심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보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정보의 질, 신뢰성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추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일부 한계를 갖고 있어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측정은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보의 비판적인 이해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비판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과 경향을 활용하였다. 또한,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는 기존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을 수행한바,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석의 풍부함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J. A. Oh & J. W. Yoo.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2(2), 319-344.
- [2] J. H. Lim, E. K. Kim & H. M. Kim. (2020).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on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6(2), 111-135.
DOI : 10.26857/JLLS.2020.5.16.2.111
- [3] Y. D. Kim, Y. H. Cho & Y. G. Suh. (2017).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mong the Elderly: A Focus on Digital Literacy and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5(1), 229-259.
- [4] S. J. Kim & S. O. Choi. (2019). The Influence of Digital Literacy on Privacy Concer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0(2), 257-284.
- [5] K. M. Ji & N. S. Kim. (2021). The Effect of Elderly's Digital Literacy on Political Efficac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1601-1616.
- [6] H. S. Kim & J. S. Shim. (2020). Digital Literacy of Elderly People and Soci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30(2), 153-180. DOI : 10.23036/kapae.2020.30.2.006
- [7] S. Y. Lee. (2021). Th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in the Elderly on Quality of Life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6), 307-322.
- [8] S. M. Oh & S. S. Choi. (2021). The Effect of Digital Information Level on the Intention to Use New Technology among Older Adults: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Technical Self-Efficacy and Utilization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6(4), 137-1702.
- [9] L. Larsson. (2000). Digital Literacy Checklist, *Health Services,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ington*.
- [10] Y. Eshet. (2002). *Digital literacy: A new terminology framework and its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meaningful technology-based learning environments*.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mputing in Education (ACE), 493-498.
- [11] D. Bawden. (2001).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ies: a review of concepts. *Journal of documentation*.
- [12] K. Ala-Mutka. (2011). Mapping digital competence: Towards a conceptual understanding. Seville, Spain: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IPTS),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Retrieved from http://ftp.jrc.es/EURdoc/JRC67075_TN.pdf
- [13] D. Roh & H. J. Ok. (2020).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Through Text Mining of News Articles.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1(5), 103-129. DOI : 10.37736/kjlr.2020.10.11.5.04
- [14] W. S. Lee. (2014).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Media Education and the Media Literacy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795-809.
- [15] OFCOM. (2021). What is Ofcom's Definition of Media Literacy. Available: <https://www.ofcom.org.uk/research-and-data/media-literacy-research/media-literacy> [cited 2022. 04.05].
- [16] EAVI. (2011).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 [17] K. H. Kim, G. J. Kim & S. J. Lee. (2019). Media Literacy Components and Generation Gap in the Mobile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3(4), 5-36.
- [18] Y. S. Hwang, N. S. Park, H. J. Lee & W. T. Lee. (2012). Exploring Digital Literacy in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Generation Gap.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2), 198-225.
- [19] S. J. Ryu & H. S. Ko. (2021). Relative effects of digital literacy on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Focusing on media device and comparison between digital natives and digital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5(6), 149-186.
- [20] J. H. Lee & G. Y. Kim.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Level and Critical Media Literacy among Older Korean Adults - The Moderating Role of Need for Cognition.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2(5), 443-474.
- [21] I. H. Choi, J. Y. Yum, R. W. Kim & S. H. Jung. (2018). Effects of Income, Age, and Need for Cognition on Digital Media Skills and New Media Literacy.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5(2), 181-221.
DOI : 10.36494/JCAS.2018.06.35.2.181

- [22] H. N. Lee, Y. R. Hwang & S. H. Jeong. (2021).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while using media The role of personality traits and digital litera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1), 236-269.
DOI : 10.20879/kjcs.2021.65.1.236
- [23] J. S. Min. (2011). Effect of News Media Exposure on Political Knowledge, Cognitive Complex and Schema-driven In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3), 63-90.

장 혜 윤(Hye-Yoon Jang)

[정회원]



-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 2016년 2월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 2020년 3월~현재 :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정책평가, 재무행정, 문화정책, 산업정책
- E-Mail : hyj0228@mokwon.ac.kr